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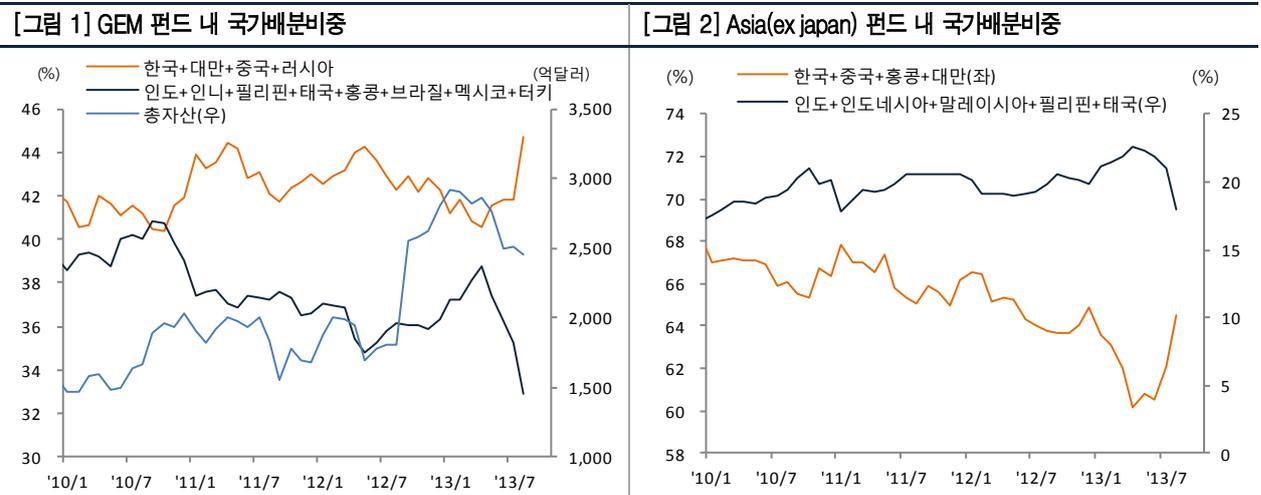
## 신흥국 차별화에 주목할 때

코스피는 하락 마감.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부채한도 & 재정 협상 관련 불확실성 높아지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세. 외국인인 매수 지속했으나, 매수 규모는 감소. 반면 장후반 연금금이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낙폭 축소에 일조

미국 9월 FOMC 에서 예상과 달리 양적완화 축소에 나서지 않았으나, 향후 유동성 확대 국면이 마무리된다는 기조는 변함 없음. 미국에서 부채한도 상향,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글로벌 자금이 다소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음. 정작 이러한 미국의 유동성 축소, 불확실성 상황에서 선진국 주식이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 높지 않으며 신흥국 주식이 불리한 위치

하지만 최근 흐름은 신흥국내 차별화가 진행되는 것. 실제 글로벌 펀드 중 GEM 펀드와 아시아(일본제외) 지역 펀드를 보면 연초 이후 전체 자산은 큰 변화가 없거나 6 월 이후 감소했는데, 펀드 내 지역 배분 비중을 보면 한국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 전반적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터키 등에서는 배분 비중이 감소하나 한국, 대만, 중국 등으로는 비중 증가 추세. 신흥국 내 옥석 가리기 흐름이 진행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내 증시가 수혜를 받으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던 것

국내 주식에 유입되는 자금의 성격을 보면 장기성 자금인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음. 과거 미국계 자금이 의미 있게 유입되었던 시기는 2009 년 4 월부터 2011 년 5 월로 유럽위기 이전인데, 당시 코스피는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였음. 단기적으로 국내 기관이 차익실현 지속하고 있고, 10 월말까지의 미국 불확실성, 연말경 글로벌 유동성 축소 가능성 감안하면 지수가 당장 추가 상승보다 쉬어갈 가능성 높지만, 한국의 상대적 우위 위치는 지속될 개연성 높음



자료: EPFR, 미래에셋증권 상품마케팅본부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 투자를 돕기 위하여 미래에셋증권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상품마케팅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미래에셋증권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유정